



유럽 증시, 긍정적 제조업 지표 결과에 강세

유럽 증시 리뷰

2 일(월) 미 증시, 영국 증시가 휴장하여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ECB 의 추가적인 매파적 신호에도 독일, 프랑스 등 긍정적인 제조업 PMI 지표 결과에 힘입어 상승 마감(EUROSTOXX50 +1.65%, DAX +1.0%, CAC 4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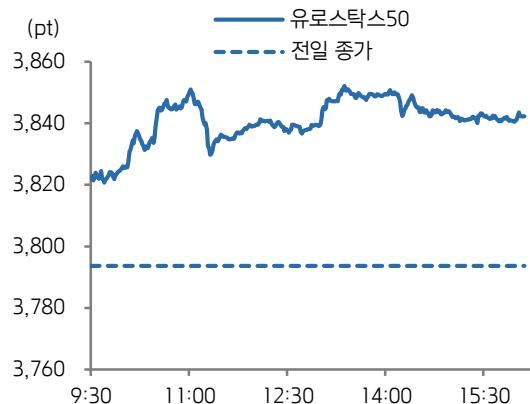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올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는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ECB 의 최근 전망치를 근거로 경기후퇴가 발생해도 단기간의 얇은 경기후퇴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유로존 12 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는 47.8(예상 47.8, 전월 47.1) 예상치에 부합. 독일은 47.1(예상 47.4, 전월 47.4)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3 개월 연속 상승한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 프랑스는 49.2(예상 48.9, 전월 48.3)로 긍정적. 집계측은 제조업 침체가 인플레이션, 경제활동 둔화,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실적을 짓누르면서 12 월까지 지속되었지만 생산과 신규 주문이 각각 5 월과 6 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등 하락의 강도는 계속 완화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

테슬라의 2022년 4 분기 전기차 인도 실적은 40 만 5,200 여대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43 만 1,100 대를 하회. 일부 모델의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와 물류 문제 등으로 테슬라가 타격을 입은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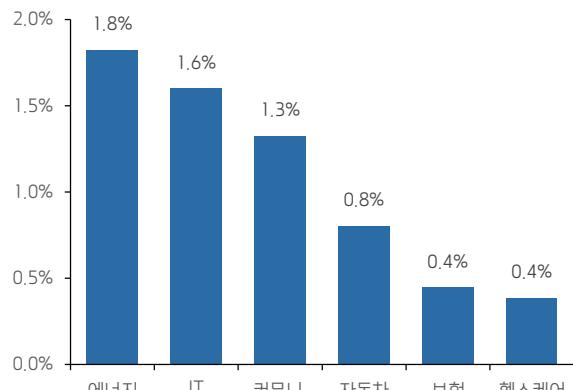
현지시간 5 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2023년 CES 개최 예정. 2021년 전면 온라인, 2022년 행사 직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이 오프라인 전시를 포기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개최된데 이어, 3년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 지난해 불참했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과 모빌리티 분야의 전시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보도.

유로스탁스50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39.50	-0.25%	USD/KRW	1,272.46	+0.96%
NASDAQ	10,466.48	-0.11%	달러 지수	103.52	-0.3%
다우	33,147.25	-0.22%	EUR/USD	1.07	-0.35%
VIX	21.67	+1.07%	USD/CNH	6.93	+0.06%
러셀 2000	1,761.25	-0.28%	USD/JPY	130.68	-0.34%
필라. 반도체	2,532.11	-0.1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391.91	-0.77%	국고채 3년	3.760	+3.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791	+5.6bp
Eurostoxx50	3,856.09	+1.65%	미국 국채 2년	4.426	+0bp
MSCI 전세계 지수	605.38	-0.33%	미국 국채 10년	3.875	+0bp
MSCI DM 지수	2,602.69	-0.3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56.38	-0.11%	WTI	80.26	+2.37%
MSCI 한국 ETF	56.48	-1.14%	금	1826.2	+0.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3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69.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연이은 주가 조정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 테슬라의 인도량 부진이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 신용담보유지비율 원상 복귀가 개인 수급(반대매매 등)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는 그간 증시 영향력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성장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아지는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음. 12 월 FOMC 에서 경기 전망을 낮춘 연준이나, IMF, OECD 등 주요 기관에서도 '23년 성장 경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가령, 1 일 IMF 총재 역시 전쟁, 인플레이션, 고금리 충격 등으로 인해, 유럽, 중국 포함 전세계 국가의 약 3 분의 1 이리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

그러나 경제와 다르게 주식시장은 실제 경제 및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최근처럼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표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환경 속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기대보다 높거나 부합하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반대로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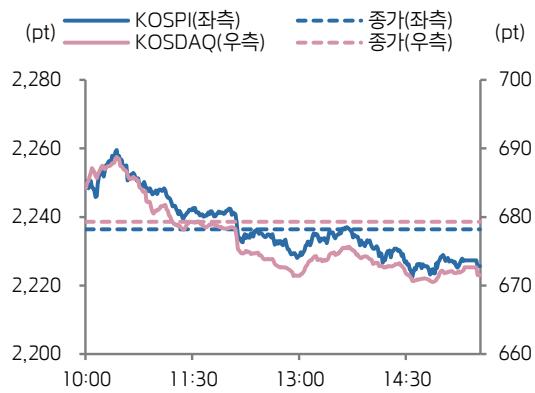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전일 유럽 증시의 반등 배경도 12 월 프랑스(49.2, 예상 48.9), 이탈리아(48.5, 예상 48.5), 유로존(47.8, 예상 47.8) 등 유로존 제조업 PMI 가 우려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결국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한국, 미국 등 주요 주식시장은 성장 민감도가 높아진 환경 속에서 지표 의존적인 시장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존 당사의 관점의 유효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주요 해외 증시 휴장에 따른 관망심리 속 미국 경기 침체 불안 지속,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장초반 상승 출발한 이후 하락 전환하며 전강후약의 장세로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1.2%).

금일에는 지난주 이후 연속적인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유럽 증시 강세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전망. 업종관점에서는 WSJ 등 주요 외신에서 테슬라의 2022년 연간 전기차 인도량(131 만대)이 머스크의 목표치(140 만대)나 시장 컨센서스(약 134 만대)를 모두 하회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이 눈에 띠는 부분. 이는 국내 2차전지 관련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미 테슬라발 악재는 지난해 말 이후 상당부분 동반 주가 조정을 통해 소화했으며, 1 일 발표된 12 월 수출에서 2 차전지 수출(+29.7%YoY, 11 월 +0.5%)이 큰 폭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 시 주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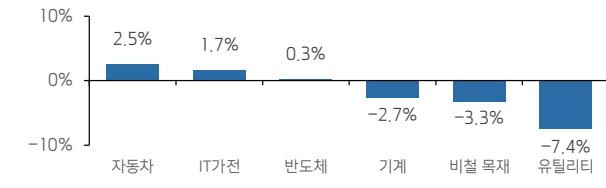
한편, 당국에서 지난 코스피가 두 차례 연저점 테스트를 하며 폭락했던 7 월, 9 월 당시 증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완화(140%→130%), 반대매매유예(+1 거래일) 등의 조치가 올해부터 원상복귀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새해 첫 주부터 반대매매 물량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피, 코스닥 내 중형주, 소형주 혹은 리오프닝 테마주들의 경우 수급 노이즈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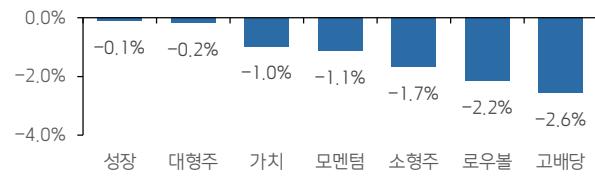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